

지상토론 | 학교는 필요한가 >

제도교육은 화학농업, 대안교육은 유기농업

정유성 | 서강대 교양학부 교수

제도교육이 화학농업이라면, 대안교육은 유기농업이다. 유기농업으로 키운 벼는 키는 작을지 모르지만 땅의 기운을 고스란히 머금어 낱알 하나하나도 튼실하고, 그것을 먹는 사람도 건강하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대안교육이다.



애물단지가 돼버린 제도교육을 뿌리부터 되살리려는 노력이 대안교육이다.

교육이란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미 만들어진 삶의 바탕을 전해주는 일일 뿐 아니라, 이들 스스로 새로운 삶의 바탕을 마련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일이다. 그래서 교육은 한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들숨과 날숨 같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사회의 건강을 지켜주는 커녕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어지럽지만 한 현대화 과정에서 사회는 형클어지고, 교육은 제대로 전할 것을 전해주지 못한 채 더 큰 어질머리가 돼버렸다. 다른 한편 빠르게 달라지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가기만 바쁘고, 게다가 산업화나 정보화의 수단으로 떨어져 버린 나머지 새 천년을 바라보는 지금, 그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갈 자라나는 세대의 새로운 삶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은 꿈조차 꾸지 못한다.

군림하는 제도교육

그러면서도 오랜 인문승배 전통에 사로잡히고, 어지러운 사회에 치이기만 한 여느 사람들은 교육에 목을 맨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자라나는 세대는 잘 길러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주겠노라 하며, 교육을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하지만 전혀 제몫을 하지 못하고 국가경쟁력의 수단이나 출세와 장사의 도구로 전락한 교육은 어찌해 볼 수 없는 거대한 제도와 체제로 굳은 채 우리 위에 군림한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

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터조차 황폐하게 한다. 이제 교육은 애물단지가 돼버린 것이다.

사정이 이쯤 되니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버릇처럼 교육개혁을 말한다. 하지만 이미 흔들릴 대로 흔들린 교육이 몇가지 제도를 손보고, 새로운 장치를 마련한다고 나아질 수 없다. 그 병이 너무 깊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말 그대로 환골탈태, 그 뿌리를 갈고 체질을 바꾸는 개혁 없이는 되살아날 수 없다.

바로 이런 교육을 뿌리부터 되살리려는 노력의 하나가 대안교육이다. 잘못된 제도를, 이제 조금 비껴서서 다른 눈으로 바라보며, '틈새'를 뚫고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일이다. 이를테면 제도교육에서 획일화되고 경직된 틀 때문에 놓쳐버리고, 또는 가끔은 내다버린 이른바 '벗어난 학생' 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교육학 교과서에만 있고 학교현장에는 없던 학생들의 삶과 느낌이 살아 있는 교육을 교실에서 실천하는 일 등이 그렇다.

이렇게 본다면 대안교육이란 전혀 새로운 교육이라기보다, 가장 교육다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분의 말씀대로 지금, 여기 우리 제도 교육이 마치 화학농업, 그러니까 땅은 척박하고 벼들은 뻣뻣하고 하니 마구 화학비료 퍼붓고, 맹독농약을 쳐뿌려 키만 웃자라고 낱알은 튼실하

지 못한 벼를 키우는 교육이라면, 대안교육은 유기농업이다. 청둥오리 농법처럼 오리가 풀 뽑아 주고, 나쁜 벌레 잡아먹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데다 벼를 부드러운 깃털로 쓰다듬어 잘 자라게 해주는 유기농업으로 키운 벼는 키는 작을지 모르지만 땅의 기운을 고스란히 머금어 낱알 하나하나도 튼실하고, 그것을 먹는 사람도 건강하게 해준다. 이것이 바로 대안교육이다.

교육에 대한 낯은 틀 벗어나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 탓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중에도 이런 교육을 현장에서 펼치려고 애쓴 사람들의 노력이 쌓인 덕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열이 넘는 대안학교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그저 제도교육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만으로 대안교육이라는 대접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그 형식과 내용을 모두 대안적으로 아우르는 지혜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관이 지원하고 규제하는 식으로는 안된다. 삶이 되살아나고,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그런 교육을 삶의 온자리에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열매맺는 식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낯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그 본디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